



보도 일시	2021. 1. 7.(금) 08:30	배포 일시	2021. 1. 7.(금) 08:30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귀범 (044-215-2830)
		담당자	사무관 이재현 (jaecheon7@korea.kr)

##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역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① 직접일자리사업 '22년 1월 조기집행 계획(고용부, 제목만 공개)
- ②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계획(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 ③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 고도화 방안(과기부, 제목만 공개)
- ④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금융분야	(금융위)	고용분야	(고용부)	행정분야	(행안부)
소상공인·중기분야	(중기부)	교통분야	(국토부)	공정거래분야	(공정위)
관광분야	(문체부)	해운분야	(해수부)	통계분야	(통계청)
외식분야	(농식품부)	환경분야	(환경부)		
수출입분야	(산업부)	디지털분야	(과기부)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담당 부서 <총괄>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830)
		담당자	사무관	이재현 (jaecheon7@korea.kr)
<공동>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신기태 (shinkt89@korea.kr)
<공동>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책임자	과 장	송진혁 (044-215-8510)
		담당자	사무관	김주민 (rlawnals1@korea.kr)
<공동>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	책임자	과 장	이보인 (044-960-6160)
		담당자	사무관	신대원 (recallme@korea.kr)
<공동>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	책임자	과 장	김우철 (044-960-6170)
		담당자	사무관	허지수 (jisoocho@korea.kr)

## 【 개최배경 】

2022년 제1차 정책점검회의<sup>1)</sup>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코로나 위기와 대전환의 격변기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강한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른 경제회복을 통해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며  
반등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해였습니다.

위기 중 2년 평균 성장률이 1.5%로 전망<sup>2)</sup>되면서  
OECD 평균인 0.2%를 상회하고  
G20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새해 첫 날(1.1일) 발표된 2021년 전체 수출입 동향은  
수출액 6,445억 불, 무역액은 1조 2,596억 불로  
각각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세계 무역순위가 8위를 기록하였고  
12월 수출도 10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간 점도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아울러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2년 연속 300억불을 초과달성하면서  
우리 경제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습니다.

1)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2)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OECD '21.12월 전망

새해에도 경제팀은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전조한 경기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신속한 대응을 중히 여긴다는  
“사귀신속(事貴神速)”의 마음으로  
정책수립과 점검에 속도감을 높이겠습니다.

연초 동절기를 맞아  
노인·저소득층·장애인·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이 직면한  
일자리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도 직접일자리 106만명의 절반이 넘는  
60만명 이상을 1월 중 조기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 물가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년보다 1주일 빠르게 설 명절 3주 전인 다음주부터  
16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보다 확대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한 박자 빠른 정책대응으로  
민생을 살피고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를 담아

- ①직접일자리사업 '22년 1월 조기집행 계획,
- ②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계획,
- ③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 고도화 방안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 직접일자리사업 '22년 1월 조기집행 계획 】

첫 번째 안건은 직접일자리사업 '22년 1월 조기집행 계획입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당장 민간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계안정과 민간일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  
직접일자리 104만개(본예산 기준)를 제공하여  
고용위기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방역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 등의  
고용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직접일자리 106만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절기에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1월중 60만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정부는 조기채용을 위한 사전절차를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작년 12월초부터 복지부, 고용부 등 7개 부처가 87만명 규모의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해 1차 통합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다음주중으로 2차 공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11월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  
금주에 이미 15만명이 넘는 분들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채용을 시작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1월중 지자체별로 모집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채용의 신속성을 감안하여  
비대면 면접을 병행 중이며,  
채용된 인력의 투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교육을 비대면으로 하는 등 사전 절차를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민간일자리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조기채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계획 】

두 번째 안건은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최우선 과제인  
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성수품 가격 안정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채소류 가격안정 등으로  
과거 12월 평균에 비해 전월비 상승폭은 높지는 않으나<sup>3)</sup>  
축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7.8% 상승<sup>4)</sup>하였습니다.

1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설을 앞두고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로 인한 상방압력, 한파 영향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 등 물가 관련 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과거보다 4주 빠른 지난 1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설 물가점검 특별대응팀을 가동하여  
농수산물 비축과 계약재배물량 조기 확보와  
축산물 도축 및 출하 확대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3) ('21.12) 0.8%, (과거 5년 평균) 1.4%, (과거 10년 평균) 1.6%

4) 농축수산물 물가 추이(전월비, %) : ('21.7)0.2 (8)2.1 (9)2.7 (10)△2.7 (11)0.4 (12)0.8  
농축수산물 물가 추이(전년비, %) : ('21.7)8.5 (8)5.6 (9)3.1 (10)0.5 (11)7.6 (12)7.8

이를 통해 올해 설 기간에는 16대 성수품 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sup>5)</sup>인 20.4만톤까지 확대<sup>6)</sup>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급기간도 작년보다 1주 늘어난 3주로 하여  
1.10일부터 공급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무는 평시대비 공급물량을 각각 1.6배, 1.5배 확대하는 한편,  
가격·수급 불안 발생시 정부 비축물량,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추가적인 공급 확대를 할 예정이며,  
사과·배는 평시대비 공급물량을 각각 2.5배, 1.76배 확대하여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소·돼지고기의 경우  
평시대비 공급물량을 각각 1.5배, 1.25배 확대하는 한편,  
도축 예정 물량을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공급하기 위해 성수품 공급기간 동안  
한우 암소 한 마리당 도축수수료 15만원,  
돼지 한 마리당 상장·도축수수료 최대 2만원을 지원하여  
공급물량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계란은 작년 말 산란계 6건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추가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22년 상반기까지 계란 및 계란가공품 할당관세를 인하(8~30%→0%)  
하는 등 경제심을 늦추지 않고 수급 불안 요인 발생시  
즉시 수입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성수품인 6대 대중성 어종<sup>7)</sup>의 경우  
'21년 생산량이 전년대비 19%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수급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5) ('21년 설) 15.6만톤, ('21년 추석) 19.2만톤 공급

6) (배추) 2,550톤 (무) 4,080톤 (사과) 14,000톤 (배) 12,500톤 (소고기) 18,700톤 (돼지고기) 67,199톤

7)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오징어, 마른멸치

설 기간 가격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비축물량(최대 6,166톤)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방출하여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1.10일부터 1.28일까지 3주간을 '16대 성수품 특별공급기간'으로 지정하고, 관제부처 점검·대응반을 구성하여 수급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예산 590억원 중 40% 이상인 250억원을 설 기간 중 집중 투입하고 사용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유통업체의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축산물 할인품목 범위를 예년보다 더욱 확대<sup>8)</sup>하는 한편, 농산물과 수산물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0%에 유통업체 할인행사 15~30%를 추가 적용하여 할인폭이 추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 행사(20%), 증소과일 특별 할인판매(10만세트),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20%) 등 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 할인행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대책 내용을 세밀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표 이후 실제 현장에서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설 전까지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설 물가 동향을 매주 점검하고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8) 계란의 경우 기존 30구 포장에 적용하던 할인 지원을 소포장(10·15구)까지 확대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 고도화방안 】

세 번째 안건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 고도화 방안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서비스 개발의 밑거름인 대규모 데이터 확보가 필요합니다.<sup>9)</sup>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로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571개 기관 4만 여명의 인력이 참여하여 음성·자연어, 국토환경 등 381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이중 191종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수면장애 치료기 개발, 위변조 감지 알고리즘 개발 등 다양한 AI 혁신서비스를 창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전략적 구축과 활용 촉진을 통한 전 산업·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우선, 양질의 데이터를 풍부하게 공급하여 역동적인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작년(3,705억원) 대비 56% 증가한 5,797억원을 투입하여 올해 추가로 310종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총 1,300여종으로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시장의 수요와 기술발전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여 헬스케어, 교통, 재난·안전, 금융 등 각 분야별 데이터 구축·개방 로드맵과 이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9) 국내 AI·데이터 기업은 AI 개발 시간의 80% 비용의 75%가 데이터 확보에 소요된다고 응답(’20, NIA)

또한, 데이터가 전 분야로 흘러가서  
민간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통과 공유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I 허브<sup>10)</sup>와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 간의 연계를 확대하여,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찾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에 참여한 인력이  
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참여인력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데이터 구축 경험을 관련 분야 경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 마무리말씀 】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고 합니다.  
2022년이 코로나 위기의 끝이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도록  
정재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관련 과제들이  
선도형 정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만들고  
선제적 물가 대응 노력들이  
서민생활 안정의 체감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

10)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가공·활용을 위한 통합 플랫폼([www.aihub.or.kr](http://www.aihub.or.kr))